

코스피지수 1,375.76 (-15.41)

코스닥지수 513.22 (-4.15)

금리(국고채 3년) 4.20% (-0.04)

원·달러 환율 1,266.30원 (+6.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 제조업 우수제품 대형마트 번번이 되자

입점 해도 높은 수수료·운영비 '버티기' 힘들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토종 제조업체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한 대형 유통업체때문에 두 번 울고 있다.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점하기가 쉽지않고 입점을 했더라도 높은 수수료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손에 쥐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용품만 만드는 A사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포기했다. 광주시 우수 중소기업제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아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시도했지만 계약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제품은 좋는데 가격이 비싸다며 공급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한 유통업체 바이어와 공급단가를 낮출 경우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안된다는 A사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입점 포기 의 원인이 됐다.

광주에서 천연식품을 제조하는 B사는 얼마 전 전국 규모의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1

년전 어렵게 입점에 성공했지만 운영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속진 강박'식의 구조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는 때문이다.

B사의 정보(49) 사장은 "매출액 중 30%는 1+1 증정행사 비용으로, 50%는 입점 및 납품 수수료로 빠져 나가 직접 손에 쥐는 것은 매출액의 20%에 불과하고 여기서 직원 급여와 공장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손해"라며 "1년동안 1억원의 빚만 지고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처럼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두 번 우는 이유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품 구매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점포가 나서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제품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의 3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지역업체는 2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입점업체 대다수도 식품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제조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어렵게 입점하더라도 높은 수수료와 관리비용 등으로 수익의 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유통업체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수록 손해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하고, 입점당시 계약을 맺었던 매출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진열대에서 상품을 빼야하기 때문에 자비로 물건을 구입해 매출액을 맞추는 사례까지 있다.

한창희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지역 제품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를 확보할 때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나서 지역상품 판매장 등을 만들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내수 점유율 35%대 도전

쏘렌토R·모닝·쏘울 등 반응 좋아 자신감

기아차가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연간 점유율 35% 돌파에 도전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8년 현대차와 한 살림을 차린 이후 시장점유율이 20%대에 머물렀던 기아차는 올해 2월 이후 월간 점유율이 4개월 연속 30%를 넘어서면서 1~5월 누적 점유율로 30.8%를 기록했다.

기아차가 올해 연간 점유율 30%를 넘어서면 1995년(30.4%) 이후 14년 만에, 현대차가 인수한 뒤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기아차의 연간 시장점유율은 1999년 27.3%, 2002년 26.4%, 2005년 23.

3%, 2008년 27.4% 등으로 10년간 한 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기아차의 점유율 상승은 경차 모닝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로체 이노베이션, 쏘울, 포르테와 지난달부터 시판된 쏘렌토R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쏘렌토R는 경유가 인상으로 침체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판매 독주를 이어가 기아차의 약진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쏘렌토R는 현재 7천여명의 고객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기아차는 연간 점유율 30% 돌파에

서 한 발짝 더 나아가 35%대를 깨겠다는 의욕도 내비치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1월 전국 지점장 판매 결의대회에서 올 시장점유율로 35%를 달성하겠다고 결의했지만 당시에는 이 결의가 실현될 것으로 낙관하는 시각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 약재보다 호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윤리기업대상 포스코 종합大賞

포스코가 2009년 대한민국 윤리기업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윤리기업대상은 윤리경영을 통해 바른 기업문화를 정착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포스코는 16일 '경영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경영', 'CEO의 경영능력' 등 주요 평가 부문에서 고르게 최고점을 받아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이코노믹리뷰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포럼 등이 후원하는 이번 윤리기업대상에서 심사위원들은 포스코가 윤리 준수와 사회적 책임 수행을 기본으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구축하며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팔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출물가 40년래 최대폭 하락

작년말 대비 7.6% ↓

수출물가가 4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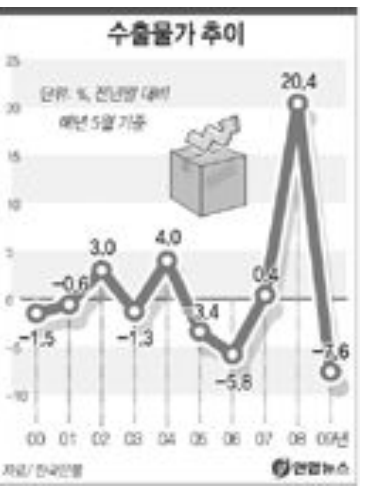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수출물가(원화)는 작년말에 비해 7.6% 떨어져 1~5월 5개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1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작년 5월의 수출물가는 전년말보다 20.4% 올랐다.

5월 수출물가가 전년말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경우는 1971년 이후 ▲1989년 -1.2% ▲1996년 -5.4% ▲1998년 -2.5% ▲1999년 -3.7% ▲2000년 -1.5% ▲2001년 -0.6% ▲2003년 -1.3% ▲2005년 -3.4% ▲2006년 -5.8% 외에는 없다.

수출물가는 1975년 16.1%, 1980년 25.1%, 1988년 1.7% 등으로 1988년 이후 하락세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이후부터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세계경기 침체 여파로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져 수출물가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는 수출총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211개 품목



의 외화 계약가격에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따라서 수출물가는 수요-공급뿐 아니라 환율에 의해서도 변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물가는 하락한다.

분야별로는 종이 및 종이제품이 20.5% 떨어졌고 금속1차제품 19.9%, 정밀기계제품 15.5%, 조립금속제품 15.0%,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13.0%, 전기장비제품 12.0%, 운송장비제품 8.6% 등의 비율로 하락했다.

반면,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은 5.5% 올랐고 농림수산물품은 1.8% 내리는데 머물렀다. /연합뉴스



자전거용 자동 변속기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업대전 박람회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자전거용 자동 무단변속기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는 달라고

대형마트 5곳, 시와 지역 기어 이행 협약

농축수산물 구매 늘리고 주민 채용 앞장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전주 시내 대형마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전주시내 5개 대형마트는 18일 전주 시청에서 '대형마트 지역 기여 이행 협약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이들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상품의 매출량을 늘려 판매하고 종업원 채용에도 주민을 우선하여 배려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내의 매장을 빌 수 있으면 지역의 사업자에게 분양해주고 인재양성이나 복지 등의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들은 협약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이들 사항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게 된다.

협약에는 E마트와 삼성테크㈜ 홈플러스 2개 지점, 롯데마트 2개 지점 등 시내 대형마트 5곳 모두가 참여했다.

이 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2월 만든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에 따라 추진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대형마트가 모두 참여해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며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행 정도를 공개하게 된다.

협약에는 E마트와 삼성테크㈜ 홈플러스 2개 지점, 롯데마트 2개 지점 등 시내 대형마트 5곳 모두가 참여했다.

이 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2월 만든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에 따라 추진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대형마트가 모두 참여해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며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ogo, contact information, and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statu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featuring a logo,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ed listings for land, houses, and commercial properties.